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이미지의 衣裳 디자인 研究

- 「Violetta」이미지의 女性服 디자인을 中心으로 -

崔봄시내*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the Image of Verdi's Opera 『La Traviata』

- Centering on the Design of Women's Clothes with Images of 「Violetta」 -

Choy, Bom-Shi-Nae* and Cho, Kyu-Hwa

M.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most popular and beloved Verdi's 『La Traviata』 as the subject in the year 2001, which is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death,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arias by the main character 「Violetta」 and the characteristics, images, clothes and their symbolism expressed through and stage costumes of major performances shown in Korea and abroad. Furthermore,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propose a new fashion brand image called 「Violetta look」 by incorporating this image into current fashion to join fashion and stage, and to actually design and producing these clothes.

Therefore, stage costumes of characters shown in the limited space called stage were connected with the study of characters' images and applied into the current fashion as a brand image, and from the industrial aspect, a high value added fashion brand image was created.

Key words: apparel brand(기성복 브랜드), image(이미지), romantic style(로맨틱 스타일), Violetta(비올레타)

I. 서론

일반적으로 유행이 생성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나 개인의 이름을 전할 때가 많다.¹⁾ 오페라는 노래하는 연극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종합예술의 극치'라 일컬어지고 있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주가 되어 배우가 입고 있는 무대의상은 관객들에게 극중 배우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극중에서의 역할 등을 이해시키고 극중 배우의 이미지를 인식시킨다.

2001년 베르디 서거 100주년으로 기념 행사와 연구가 많았지만 오페라 이미지를 패션산업과 연계시킨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La Traviata』의 선행 연구들은 오페라 음악이나 작품 연구,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작품의 복식사적인 배경 연구와 연계된 등장인물들의 무대의상 연구에만 그쳤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La Traviata』의 여주인공 「Violetta」가 당시 화류계의 여왕이라 할만큼 모드를 이끌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녀의 무대의상을 통해 나타난 성격과 이미지, 복식과 그 상징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접한 『La Scala』 극장의 팸플렛, 오페라 관련 서적들과 본 연구자의 기성복 디자인 경험을 토대로 패션과 무대의 연계성을 시도하여 『Violetta』를 현대의 한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디자인을 기획, 제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무대인상을 통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패션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패션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시도했다.

최근 2002 S/S에 나타난 화이트, 레이스, 프릴과 러플을 이용한 로맨틱 트렌드에 맞게 본 연구에서 기획, 제작한 2002/2003 F/W 『Violetta look』도 로맨틱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비교 고찰한 오페라 공연 무대인상은 2001년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을 비롯한 밀라노 스칼라 극장, 영국 로얄 오페라단의 공연 등을 참고하였고, 이태리어로 된 작품의 번역은 2001년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팸플렛 『La Traviata』를 참고하였다.

II.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의 배경

1. 작품설립과 시대적 배경

『La Traviata』는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와 실제로 연인관계로 지낸 파리 사교계의 마리 뒤프레시스(Marie Duplessis)를 모델로 한 소설 『La Dame aux Camélias』(동백꽃을 단 여인)를 베르디가 오페라화한 것이다. 소설이 출판된 것은 1848년으로, 당시 프랑스의 대중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뒤마는 같은 주제를 다시 희곡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베르디는 파리에서 이 연극을 보았으며, 피아베(Francesco Maria Piave, 1811-1876)에게 대본을 부탁하였다. 오페라의 초연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페니체(Fenice) 극장에서 1853년 3월 6일에 있었다.²⁾ 오페라는 대부분 1840년대를 시대배경으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베르디가 뒤마의 소설을 오페라화한 것을 참작하여 뒤마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초연의 실패 1년 후, 베르디는 작품에 수정을 가해 다시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두었다.³⁾ 작품의 배

경이 되는 당시 프랑스는 로맨틱 시대로 분류되는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된 1815년부터 2월 혁명이 일어난 1848년 2월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각국에서 반동세력이 증강한 시기이다. 1824년 프랑스에 서는 루이 18세(Louis XVIII) 사망 뒤 보수반동정권의 지지자인 샤를 10세(Charles X)가 계승하였다. 이후, 다시 구 귀족의 지위는 향상되어 생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로맨틱 양식이 소생하기 시작했다.

2. 문학적 배경

『La Traviata』가 등장한 19세기 문학은 전기 로맨틱시즘(romanticism), 로맨틱시즘(1820-1850), 리얼리즘(realism) 및 자연주의(1850-1890)의 3시기로 분류된다.⁴⁾

오페라 『La Traviata』의 경우 시대적 배경으로는 로맨틱시즘에 속하지만 문학적 배경으로 보자면 로맨틱시즘에서 리얼리즘 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라 하겠다.

『La Dame aux Camélias』가 출판된 1848년 당시의 프랑스는 7월 왕정(1830-1848)⁵⁾에 이어 2월 혁명(1848)⁶⁾이 일어난 시기였다. 7월 왕정시대에는 문학사적으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전의 로맨틱시즘 경향에 대한 실증주의적 경향과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소설, 시, 연극에 있어서도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예술지상주의를 기조로 하는 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되었고 사상 면에서는 콩트(Comte)의 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⁷⁾ 문예사조가 로맨틱시즘에서 점차로 리얼리즘으로 옮겨감에 따라 뒤마는 현실의 관찰에 주력하게 되면서, 로맨틱한 정열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관찰하면서 리얼리즘으로의 문을 여는 작품 『La Dame aux Camélias』를 발표했다.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뒤마의 소설이 아닌 베르디의 오페라이지만 그 근원이 바로 뒤마의 소설이므로 『La Traviata』역시 문학적 배경은 『La Dame aux Camélias』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3. 복식사적 배경

『La Dame aux Camélias』의 무대는 1840년에서

1847년까지의 파리로 복식사적으로는 절정을 이루었던 로맨틱 스타일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크리놀린으로 이행하는 시대였다.

복식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로맨틱 스타일의 여성복은 1830년대의 X자형 실루엣으로 어깨는 가장 넓은 폭이고, 스커트도 차차 폭이 넓어졌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늘게 조인 허리와 거대한 지고형(gigot)소매가 특징이었고, 솔과 케이프가 외투대신 사용되었다. 소매는 1837년부터 작아지기 시작하여 1840년대에 눈에 띄게 작아졌지만 솔과 케이프가 1850년대와 1860년대까지 유행했다.⁹⁾

서양 복식사에 있어서 로맨틱 스타일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블랑쉬 페인(Branche Payne)은 1820년에서 1850년 사이로 보고 있으며⁹⁾, 앤더슨 블랙(J.Anderson Black)과 매지 가랜드(Madge Garland)는 1815년에서 1850년이라고 보고 있고,¹⁰⁾ 낭만의상전의 해설을 맡았던 스텔라 블룸(Stella Blum)은 극단적으로 과장된 지고 소매를 강조한 1835년까지를 낭만의상이라고 정하였다. 또한 블룸은 신고전주의적 로맨틱 스타일(1818-1839), 센티멘탈리, 네오 고딕주의(1840-1851), 크리놀린(1852-1867), 버슬시대(1868-1890), 아우어 글라스 실루엣(1891-1897)¹¹⁾으로 나누면서 현대 기능주의에 대칭 되는 19세기 전반을 로맨틱 스타일 시대를 구분하였다.

로맨틱 스타일은 전시대의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앰파이어 스타일에서 벗어나 1824년경부터 르네상스 때 생기기 시작한 뾰족한 허리선을 유지하면서 허리선의 위치를 내리기 시작하여 제 위치로 가져왔다. 왕정복고 초기엔 어깨선만 넓어지고 허리선이 높아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으나, 왕정복고 후기에 허리선이 제 위치로 내려오고 난 후엔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으며 이 삼각형의 허리선은 허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짙어졌다. 이에 반해 스커트는 벨 모양으로 더욱 부풀려졌고 이 부풀림을 강조하기 위해 힙 패드(hip pad)를 스커트 속에 넣고 페티코트(petticoat)를 다시 입기 시작했다. 1840년대 전반에는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기교적으로 부풀은 스커트가 나타나고 1845년경에 이르러 크리놀린(crinoline)의 사용이 눈에 띄기 시작하며 다음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Ⅲ. 『La Traviata』 작품 분석과 공연시의 「Violetta」 이미지

1. 『La Traviata』 작품 분석과 「Violetta」의 이미지

1) 작품 소개

오페라는 제 3막 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대 위 작품 내용과 배경, 극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막 Violetta의 저택: 침울하고 슬픈 선율의 서곡으로 시작된 무대 위에 곧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쾌락을 즐기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 앞에서 Violetta는 갈등한다.¹²⁾
- 제 2막 1장 파리 교외의 아담한 시골집: Violetta와 알프레도의 행복한 생활속에 제르몽으로 인한 뜻밖의 불행이 찾아움을 암시한다.¹³⁾
- 제 2막 2장 Flora의 저택: 화려한 파티에 집시들이 흥을 돋구는 가운데 Violetta와 알프레도의 오해로 침울한 분위기로 전환된다.¹⁴⁾
- 제 3막 Violetta의 침실: Violetta의 죽음을 암시하는 비극적인 분위기로 침울해진다.¹⁵⁾

피아베와 베르디는 오페라의 제목을 처음엔 『사랑과 죽음』이라 했다가 후에 『La Traviata』(방황하는 여자)로 고쳤고, 뒤마의 5막으로 된 희곡을 3막 2장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이탈리아식으로 바꾸었는데, 마르그리트(Marguerite)는 비올레타(Violetta)로 그녀의 연인 아르몽(Armond)은 알프레도(Alfredo)가 되었다.

2) 작품 속의 등장인물 「Violetta」 분석

『Violetta』는 외적으로 파리의 사교계 부인들을 압도하는 화려한 생활을 하는 당시 모드계의 주도자였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청순하고 가련한 유형의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주인공 마리 뒤플레

시스의 초상을 보아도 폐를 앓았던 만큼 어딘가 병약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섹시한 여인은 아니고 문학적 교양이 사교계의 필수적 조건으로 지배하던 19세기 부르조아 사회의 이미지에 맞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⁶⁾

오페라 대본¹⁷⁾을 통해 나타나는 ‘Violetta’의 내적 표현과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diletta’ (쾌락)로 표현된 Violetta의 이미지; ‘gioire’ (즐기다, 향락하다), ‘diletto’ (쾌락)로 표현된 Violetta의 창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리아들이다. Violetta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향락으로 위로 받으며 살고 있는 외적으로는 사교계에서 화려한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병들고 나약한 모습을 지닌 가련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Godiamo, fugace e rapido e il gau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e muore, né più si può
goder.(제 1막 中)

즐거워! 사랑... 그 기쁨은 잠시뿐이며 금방 시들어 버리고

영원히 다시 필수 없는 꽃과 같아요. 즐거워!

Sempre libera degg'io folleggiare di gioia in gioia,
vo'che scorra il viver mio pei sentieri del piacer.

a diletti sempre nuovi dee volare il mio pensier
(제 1막 中).

자유로워야 해!

이 즐거움에서 저 즐거움을 옮겨다니며 미처 맛보지 못한 새로운

쾌락을 찾으리라.

쾌락의 상대는 늘 바뀌어도 나 자신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야!

(2) Serio amore(진실한 사랑)에 눈을 뜬 Violetta의 이미지; ‘O gioia ch'io non conobbi’ (오 사랑의 기쁨, 난 전혀 느껴보지 못했네)(제 1막 中)에서 Violetta는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사랑을 두려워했고, 믿지 않다가 알프레도를 만남으로 인해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Violetta는 창부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알프레도에게 떠나달라고 하면서도 알

프레도의 진실한 애정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순수한 사랑에 눈을 뜨는 그녀의 청순한 면과 불행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가련한 모습의 이미지가 엇보인다.

(3) ‘franca’ (솔직한), ‘ingenua’ (순진한)으로 자신을 표현한 Violetta의 내적인 이미지; 여느 창부와는 다른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에서 진실한 사랑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A quell'amor ch'è palpito dell'universo intero
(제 1막 中)

아!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네

(4) ‘dolore’ (아픔, 고통), ‘misera’ (불행)로 표현된 Violetta의 이미지; 알프레도 의 장래를 위해 아들의 곁을 떠나달라는 제르몽을 원망하지 않고 Violetta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애절하고 순진한 일면이 엇보인다.

Conosca il sacrificio ch'io consumai d'amore,

che sar suo fin l'ultimo sospiro del mio cor.
(제 2막 1장 中)

사랑을 위한 나의 희생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숨이 다 할 때까지... 그이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상으로 살펴본 작품 속 아리아를 통해 나타나는 주인공 Violetta의 극중 이미지는 쾌락과 향락으로 물든 화려한 사교계의 고급 창부 생활에서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순결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2 『La Traviata』 공연시의 「Violetta」 무대의상과 그 이미지

소설 『La Dame aux Camélias』에서는 여주인공인 마르그리트의 자태, 행동, 그녀의 의상과 소품까지 글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이해를 돕는다. 오페라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추가 되어 관객의 이해를 돕는데, 『La Traviata』의 각 막과 장에서 나타나는 Violetta의 무대의상을 통

해 관객은 그녀의 극중 위치, 성격, 분위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소설과 오페라는 표현의 방법이 상이함으로 인해 각기 글과 무대라는 공간에서 표현되어지는 의상과 복색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 Violetta 의상에 나타난 색채

(1) 흰색

원작 소설에서는 일반 창부가 갖고 있지 않는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로브를 입고 있는 여주인공 마르그리트(Violetta)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르몽이 마르그리트를 처음 본 후 2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를 묘사한

'포장 없는 마차가 멈추고 백의(白衣)의 여인이 내려왔다. 주름을 주위에단 모슬린옷을 입고, 구석에 금으로 수를 놓 비단 꽃 장식이 있는 사각의 인도 솔을 어깨에 걸치고, 밀짚 모자를 쓰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굵은 금 사슬의 진귀한 팔찌를 끼고 있었다.'¹⁸⁾

-아르몽과의 밀회장면에서 묘사된 일상복

'마르그리트는 어느 틈에 하얀 화장옷(peignoir)으로 갈아 입고 있었다.'¹⁹⁾

-파리 근교의 저택에서의 생활 중에 묘사한 마르그리트의 모습인

'하얀 옷에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 물의 냉기에 닿지 않도록 실크로 만들어진 꾸밈이 없는 겹옷을 팔에 건 여자...'²⁰⁾

대부분의 오페라 작품에서도 파티에서의 Violetta를 나타낼 때, 흰색의 로브가 등장하였다. 검정색과 흰색을 당시 프랑스인 들은 쉬크(chic)한 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²¹⁾ 파리 사교계의 여왕으로 당시의 패션을 주도했던 주인공의 세련됨을 색채를 통해 표현했다. 또 일반 창부와는 다른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흰색 로브를 입혀 그녀의 순결함을 상징시켰다.

조규화는 '흰색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프랑스에서의 흰색은 검정색과 함께 '쉬크(chic)'한 색으로 '노는' 치장을 하는 데 선택된 세련된 색으로 간주되었으며, '명석', '순수', '모든 색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한 색²²⁾이라 하였다. 이는 Violetta가 비록 화류계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명석함과 순수함, 세련됨을 돋보이게 하고자 한 때문이다.

오페라 제 3막에서는 모든 작품 속의 Violetta가 일관되게 하얀 로브를 입고 있는데 이는 무대배경이 Violetta의 침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녀의 창백한 병색을 더욱 강조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마르그리트는 저를 곁에 부르고 벽장을 열어 달라고 말하며 모자와 레이스가 달린 긴 슈미즈(chemise)를 손으로 가리키고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참회하고 나서 죽겠어. 그때 이것을 입혀 줘요. 죽어 가는 여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소설에서는 흰색이라는 색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당시의 슈미즈는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흰색의 마를 많이 사용하였다²³⁾는 복식사에 언급된 내용으로 볼 때, 흰색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 검정색

소설에서는 '마르그리트가 들어왔다. 옷은 검정 일색으로 베일을 쓰고 있었다...'²⁴⁾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검정색은 마르그리트가 다시 파리 화류계 생활로 돌아갔을 때 묘사된 색채이며, 오페라 제 2막 2장에서 나타난 색채로 일반적인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보다 승화된 사랑으로 인해 아르몽의 곁을 떠난 그녀의 의지와 고뇌를 나타낸 것이라 보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상징한다. 검정색은 흰색과 함께 19세기 중엽 현저하게 대두된 쉬크한 색이다.²⁵⁾

(3) 빨간색

원작의 제목인 『La Dame aux Camélias』는 '동백꽃을 단 여인'으로 흰색과 빨간색의 등장은 소설 속 마르케리트가 가장 좋아하는 동백꽃을 상징한다. 한 달의 25일은 흰색 동백꽃을 나머지 5일은 빨간색 동백꽃을 달고 다녀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리 주기를 나타내어 창부라는 사회적 신분을 주인공의 상징적인 색상으로서 묘사하였으며,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동백 꽃말²⁶⁾에서 느껴지듯이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또, 가장 아름답게 핀 상태에서 마치 목이 부러지듯 송이 째 툭 떨어져 버리는 동백꽃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이는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숨진 Violetta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겠다.

오페라 제 2막 2장에서 빨간색의 사용은 동백꽃이 화류계의 여인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야기 전개상

Violetta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려계 생활에 돌아 왔지만 알프레도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상 선택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원작 소설과 오페라에서 표현된 여주인공의 의상 색상을 비교해본 결과 오페라에 나타나는 의상 색상은 원작과는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었지만 결국 작품을 이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으며 무대의상 디자이너 나름대로 색상 사용에 신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무대의상의 경우 무대조명 아래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무대를 통해 보이는 의상의 색채는 실제 자연에서 노출되어지는 색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Violetta의상의 소재와 스타일

『La Dame aux Camélias』에 언급된 소재는 캐시미어, 실크, 새틴, 인도산 모직, 비단 꽃 장식과 금실, 벨벳, 머슬린, 레이스와 같은 여주인공의 신분에게 맞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La Traviata』관람시 보여진 Violetta 무대의상의 소재로는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레이스, 새틴, 얇은 망사와 같은 것으로 무대 밖에서 직접 만져보고 접하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소재로 이루어 졌는지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는 오페라에서 보는 의상은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 보여지는 공연이라는 점을 감안, 소설 속에서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기 보다 관객들이 보는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대 조명 아래에서 주인공의 이미지 전달과 이야기 전개에 무리가 없고, 무대 예산상 저렴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소재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꼭 맞는 바디스(bodice)와 긴 스커트, 버터 칼라(bertha collar), 지고형 소매 등은 로맨틱 스타일 시대의 특징인데, 이는 소설 속 마르그리트의 파리에서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으로 당시 모드를 주도하던 이들의 옷차림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²⁷⁾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오페라들에 나타난 Violetta의 의상 스타일은 무대마다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는 원래의 스타일과 공연시의 유행되는 미적 감각이 융합되어 무대작가와 디자이너에 의해 재창조된 스타일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소설과 같이 일관되게 정해진

스타일은 없지만, 로맨틱한 분위기의 스타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소설과 오페라가 같다.

3) 무대 위의 Violetta의상

(1) 흰색 로브: 제 1막 Violetta의 저택

Violetta의 의상은 파리 사교계를 주도하는 역할로 파티장의 분위기에 맞게 의상 자체가 화려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흰색의 로브를 입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극 중 주인공을 쉬크 하면서도 어느 창부와는 다른 순결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의상들은 로맨틱 시대에서 크리놀린으로 넘어가는 복식사적으로 과도기로 데콜테 스타일로 어깨를 드러내고 가늘게 조인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예각 처리한 허리선과 풍성하게 표현된 스커트의 의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원작에서는 '새 연극이 상연되는 날에는 반드시 마르그리트의 얼굴이 보였는데, 언제나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아래층 특등석 맨 앞에 나와 앉았는데, 그 세 가지는 망원경, 봉봉, 동백꽃 다발이었다.'²⁸⁾에 동백꽃이 등장하는데, 오페라 제 1막에 Violetta가 가슴에 꽃을 달고 있다. 이는 알프레도에게 꽃을 건네주는 1막의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소품이며, 원작을 직역한 『La Dame aux Camélias』(동백꽃을 단 여인)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그림 1, 2)

(2) 크리놀린 스타일의 로브: 제 2막 1장 파리 교외의 아담한 시골집

Violetta가 파리의 창부생활을 청산하고 파리 교외에서 사랑하는 알프레도와의 행복한 생활을 보이고 있다. 일상적이면서 안정된 생활을 암시하듯 의상은 훨씬 차분하면서 간결하다. 루프 장식에 파고다 소매 형태의 연노란색의 크리놀린 스타일의 로브(그림 3)나 밝은 터키색의 짧은 상의에 린넨 언더 슬리브를 밖으로 보이게 한 평상복을 나타내고 있고(그림 4) 색상도 밝고 안정적이다.

(3) 검정색과 빨간색 로브: 제 2막 2장 Flora의 저택

화려계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화려한 의상이 등장하게 된다. 의상의 색상은 당시 프랑스인들이 쉬크하게 생각하였고 사랑을 포기한 Violetta의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검정색 로브(그림 5)나 붉은 동백꽃을



<그림 1> 크리놀린 스타일의 로브를 입고 있는 Violetta. Richard Eyre 연출의 영국로알오페라단 『La Traviata』(1994)



<그림 2> 버터칼라의 크리놀린 스타일의 로브 Violetta. Triglia Verdiana (Stagione 2000-2001). 『La Traviata』



<그림 3> 제 2막 1장의 Violetta. Richard Eyre 연출의 영국 로알 오페라단 『La Traviata』(1994)



<그림 4> 제 2막 1장의 Violetta: 예술의 전당.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La Traviata』(2001)



<그림 5> 검정색 로브를 입고 있는 Violetta(2001).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La Traviata』



<그림 6> 강렬한 붉은색의 Violetta 의상. Trilogia Verdiana (Stagion 2000-2001). 『La Traviata』



<그림 7> 죽음을 맞이하는 Violetta. 조성진. 『오페라 감상법』 (1999)



<그림 8> 제 3막의 Violetta: 예술의 전당.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La Traviata』 (2001)

연상케 하는 빨간색 데콜테 스타일의 로브(그림 6)가 있다. 동백꽃은 '생명과 굳은 약속의 상징' 이자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우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알프레도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무대의상들은 화려한 레이스와 리본, 망사를 이용하였고, 여기에 적절한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주인공의 극중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4) 흰색 로브: 제3막 Violetta의 침실

화려한 화려계의 생활도 끝나고 그녀에게 남겨진 건 병들고 가난한 가련한 모습이다. 병중의 Violetta가

입고 있는 흰색 로브는 실내복으로 옷의 실루엣처럼 허리를 코르셋으로 강조한 것(그림 7)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레이스와 프릴 장식으로 A라인의 깨끗하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8) Violetta의 병들고 창백한, 죽음에 가까운 모습을 오페라 작품에서는 흰색 로브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막과 장에 표현된 서로 다른 무대의 의상들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제 1막은 사교계 파티장이라는 분위기에 맞게 밝은 색상으로 화려함을 강조하였고, 제 2막 1장은 시골에서의 일상 생활을 나타내듯 평상복으로 단정한 이미지이며, 제 2막 2장은

사교계 파티장 분위기에 맞춰 의상 자체는 화려하지만 색채 면에서는 강렬하거나 어두워지는 이미지이고, 제 3막은 죽음을 맞이하는 Violetta의 모습을 흰색으로 일관되게 나타내었다. 이는 결국, 각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입는 의상은 다르지만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극중 인물의 이미지 표현은 같다는 것이다. 곧 무대의상이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창조작업으로 공연예술에서 무대의상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한다.

3. Violetta 이미지와 로맨틱 스타일

1) 로맨틱 스타일의 등장과 Violetta 이미지

현대 패션에서 로맨틱 스타일을 이야기 할 때는 협의의 복식사적인 의미에서의 로맨틱 스타일, 현대에 대칭 되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로맨틱 스타일, 민속복에서 나타나는 로맨틱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협의의 복식사적인 의미에서의 로맨틱 스타일

학자들마다 그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815년경에서 1848년경까지의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스타일을 말한다. 낭만적인 지고형 소매나 레이스와 프릴, 꽃 장식, 리본 등과 같은 화려한 장식들과 소재로 여성스러움을 한껏 돋보이게 한 것이 특징이다. 18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La Traviata』의 Violetta 이미지는 이러한 복식사적인 시대 배경의 영향을 받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스타일이었다. 즉, Violetta의 이미지는 협의의 복식사적인 의미에서의 로맨틱 스타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하겠다.

(2) 현대에 대칭 되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로맨틱 스타일

1910년 이후의 현대의 복식은 기능주의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20세기 현대 복식 이전의 19세기 근대서양 복식의 구분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

- ① 앰파이어 스타일시대(1789-1815)
- ② 로맨틱 스타일시대(1815-1848)
- ③ 크리놀린 스타일시대(1848-1870)

④ 버슬 스타일(1870-1890)

⑤ 아르누보 스타일시대(1890-1910)

이는 복식의 실루엣 상으로 나타나는 외면상의 것을 구분한 것으로, 기능적인 현대복식에 비해서는 장식적이다는 면에서는 이 다섯 시기가 모두 로맨틱 스타일 시대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들은 실루엣 면에서는 그 차이점이 보이거나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운 장식에 치중되었던 점과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면에서 현대 기능주의 대칭으로서의 로맨틱 스타일들로 구별될 수 있다.

(3) 민속복의 로맨틱 스타일

민속복이란 유행복과 대립을 이루는 보수적인 업무복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업무의 내용과 지리적, 풍토적 조건 등에 의해 그에 적당한 민속복의 형태가 각 지방에서 특색 있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유행을 따르지 않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의복이다.²⁹⁾ 이러한 민속복 중 여자 복식들을 살펴 보면 로맨틱 스타일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유행을 주도하던 상류층의 복식과 비교 할 때, 소재와 실루엣 면에 있어서는 서민적이고 기능적이기는 하나 장식적인 에이프런, 디테일의 사용에 있어서 풍성한 주름을 이용한 목면 블라우스(그림 13)와 프릴 장식된 개더스커트 등이 낭만적 스타일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민속복에서 보이는 로맨틱 스타일은 레이스, 프릴, 리본, 주름 등과 같은 디테일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그림 14)하였다.

이상과 같이 패션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만큼 로맨틱 스타일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그 스타일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Violetta 스타일이 협의의 복식사적인 의미에서의 로맨틱 스타일과 같다면, Violetta 이미지의 스타일은 과거 Violetta 스타일에서의 디테일을 적절하게 현대화시켜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2) 흰색과 Violetta의 이미지

뒤마의 소설에서 언급된 마르그리트는 '일종의 독특한 처녀와 같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조차 드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³⁰⁾ '이 여자에게 어딘가 청정한 데가 있었다. 이러한 생활에 막 발을 들여놓았을 뿐. 아직 악습에 물들지 않은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림 9> 꽃으로 장식된 엠파이어 스타일 로브(1920년대). J.AndersonBlack, MadgeGarland(1994). 『Storia della Moda』



<그림 10> 로맨틱 스타일의 로브 (1844년경). François Boucher (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그림 11> 크리놀린 스타일의 로브(1860). Nigel Arch, Joanna Marschner (1987). 『Splendour at Court; Dressing for Royal Occasions Since 1700』



<그림 12> 아르누보 스타일의 화려한 로브(1908). 출처: 그림 11과 동일.



<그림 13> 모라비안슬로바키아 지방 의상. 유태순(1992).James Snowden. 『유럽의 민속의상』



<그림 14> Sicilia, Palermo 지방의 여성 의상. 출처: 그림 13과 동일

침착한 걸음걸이, 섬약한 몸매...³¹⁾ ‘이 여자 속에는 우연한 계기로 창부가 된 처녀와 그 창부에서 우연한 계기로 정말 가련한, 참으로 청초한 처녀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창부가 엮보이는 것이었다.’³²⁾ ‘매력, 상냥함, 스며 나오는 정서 등 마르그리트는 무엇 하나 빠져 있지 않았다.’³³⁾와 같이 묘사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소설에서 자세히 묘사된 그녀의 이미지는 어느 창부와는 다른 한 남자에 대한 애절한 순결한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이미지로서의 ‘흰색’으로 대표된다.

IV. 『Violetta look』 디자인 제안과 실물 제작

1. 로맨틱 스타일의 기성복 디자인 기획 (2002/2003 F/W)

패션의 브랜드 이미지로 제안될 수 있는 『Violetta look』을 1990년대 이후 패션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현재까지 강세인 심플리시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2 S/S에 나타나기 시작한 로맨틱 스타일과 연계하여 독창적이면서 간결한 여성스러운 형태로 2002/

2003 F/W를 위한 디자인을 기획, 제작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성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중적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미지로부터 현대패션의 한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다양성의 시도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로맨틱한 스타일에 대한 여성 수요자들의 기본 욕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작품 속 Violetta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 컨셉(Concept)(그림 15)

- 테마(Theme): Violetta look-verginità(순결) & Violetta look-serio amore(진실한 사랑)
- 시즌(Season): 2002/2003 A/W
- 브랜드 명(Brand name) : Violetta

2) 타겟(Target)

- a. 연령 :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 b. 특징 :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Violetta 이미지의 자유로운 감성의 소유자로 경제력이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한껏 연출하면서도 품위 있는 패션을 추구하는 현대 보보스족(Bobos) 여성들이다.



<그림 15> 2002/2003 F/W 「Violetta look」컨셉 맵

3) 스타일(Style)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한 Violetta 이미지를 내포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로맨틱 스타일로 현대의 심플리시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성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오페라 제 1막에서 보이는 Violetta의 순결하고 세련된 느낌을 흰색 이브닝 웨어로 제 2막 2장에서 보여지는 Violetta의 화려한 화류계 생활을 암시하고 외부로부터 닫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분위기로부터 단정하고 개성 있는 빨간색 타운 웨어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4) 소재(Fabric)

『La Dame aux Camélias』에 언급된 소재는 캐시미어, 실크, 새틴, 인도산 모직, 벨벳, 머슬린, 레이스, 실크 꽃 장식과 금실 등과 같은 여주인공의 신분에게 고귀스럽고 사치스러운 소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2002/2003 F/W 현대 기성복으로 대중화 될 수 있는 소재의 선택 면에 중점을 두어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의 울과 고급스러운 광택의 실크를 주 소재로 선택하였다.

5) 색상(Color)

『La Traviata』의 원작 소설 『La Dame aux Camélias』는 '동백꽃을 단 여인'이라는 말로 직역되는데, Violetta 이미지의 색상으로 동백꽃을 연상케 하는 흰색과 빨간색이 화사하고 쉬크한 느낌의 현대패션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보고 이들을 주 색상으로 한다.

2. 실물제작

이상의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의 여주인공 Violetta 이미지에서 기획된 현대 패션의 한 브랜드 이미지로 「Violetta look」을 제작하였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적인 요소들 중 프릴을 주 디테일로 하여 절제된 라인으로 소화한 「Violetta look」의 의상 디자인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작 제시하였다.(그림 16, 17, 18)

1) 원피스(실크 100%, 흰색)(그림 16)

데콜테 스타일의 여성스러우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그림16> 『Violetta look-verginità』
원피스 실물 의상



<그림17> 『Violetta look-verginità』
망토 실물의상



<그림18> 『Violetta look-serio amore』
원피스 실물의상

나타냄

제작시 주의사항: 원피스 하단 프릴을 바이어스 재단하고 깨기 봉제법으로 마무리 어깨 홀림 방지를 위해 상의를 꼭 맞게 재단, 봉제

2) 망토(울 100%, 타조털, 흰색)(그림 17)

망토 가장 자리에 흰색의 당초문양 핸들 수장식, 타조털 트리밍

제작시 주의사항: 전체를 바이어스 재단

3) 원피스(울 100%, 빨간색)(그림 18)

프릴장식한 로맨틱한 이미지의 원피스

제작시 주의사항: 원피스 중앙과 후면 아랫단의 프릴 장식을 자연스럽게

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베르디의 오페라 『La Traviata』의 여주인공인 『Violetta』의 무대의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를 2002/2003 F/W 현대 패

션의 한 브랜드 이미지로 기획, 제작하였다.

시대적, 문화적, 복식사적으로 로맨틱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 텍스트와 무대의상을 통해 나타난 Violetta 이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Violetta의 의상은 보통 창부와는 다른 흰색의 로맨틱 스타일의 로브로 그녀의 세련됨과 순결한 사랑을 상징하며 또한 병든 Violetta의 모습을 암시한다.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온 화려계 생활의 불행, 절망, 앞으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검정색의 로맨틱한 스타일의 로브나 생명과 굳은 약속의 상징인 동백꽃의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빨간색의 로맨틱 스타일의 로브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브랜드명 『Violetta』에 적용하고, 『Violetta look』이라는 로맨틱 스타일을 기획하였다. 현대 보보스족(Bobos)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소재와 디자인은 오페라 텍스트와 뒤마의 원작 소설에 언급된 내용들을 비교 고찰한 이상의 연구결과 디자인 기획이 F/W인 점을 감안하여 울과 실크를 주 소재로 선택하고, 디자인은 로맨틱 스타일인 '프릴장식'을 주 디테일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심플리티의 절제된 라인으로 소화하였다. 색채의 선택에 있어서는 작품 속 Violetta의 순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흰색과 Violetta의 알프레도에 대한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과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죽게 되는 Violetta의 삶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을 선택하였다. 이는 『La Dame aux Camélias』(동백꽃을 단 여인)이라는 원작 소설에 근거할 때, Violetta의 「사랑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무대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보여졌던 무대의상을 등장인물의 이미지 연구와 더불어 이를 현대 패션의 브랜드 상품 이미지로 연계시켜 기성복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패션 브랜드 상품 개발에 기여하고 미학과 디자인, 마케팅을 연계시킨 연구로서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6, p. 246.
- 2) 이덕희, 세기의 걸작 오페라를 찾아서, 작가정신, 1999, pp. 164-165.
- 3) 국립오페라단 팸플렛,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2001, p. 33.
- 4) www.naver.co.kr
- 5) 오를랑(Orlean)가가 공화주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를랑공 루이 필립 (Louis Philippe)을 왕으로 추대하고 금융귀족의 부르조아적 과두 지배체제를 성립하여 금융봉건 체제를 함. 금융가에게는 유리하지만 노동자에 대한강경 한 탄압정책을 펴.
- 6) 1848년 2월 22일, 7월 혁명을 붕괴시키고 2공화정을 수립시킨 정치 혁명으로 처음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혁명의 주도 세력 중에 일부가 된 혁명. 7월 혁명보다 훨씬 민주적인 개혁을 실시적이거나 성취하였고 프랑스 뿐 아니라 전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침.
- 7) 민희식, 프랑스 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6, p. 316.
- 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1965, pp. 575-579.
- 9) 앞 글, p. 457.
- 10) J.Anderson Black, Madge Garland, Storia della Moda, DeAGOSTINI, 1994, p. 243.
- 11) 낭만의상전. 교토박물관, 1980, p. 10.
- 12) 이성삼, 'La Traviata' 충남성곡오페라단 제9회 정기공연 팸플렛, 1997, p. 80.
- 13) 앞 글, p. 81.
- 14) 앞 글, p. 82.
- 15) 앞 글, p. 83.
- 16) 국립오페라단 팸플렛, p. 30.
- 17) Trilogia Verdiana(Stagione 2000-2001), La Traviata, Teatro alla Scala, pp. 8-37.
- 18) 뒤마 피스, 양원달 역, 춘희, 신원, 1999, p. 74.
- 19) 앞 글, p. 164.
- 20) 앞 글, p. 216.
- 21) 조규화, 복식미학, p. 343
- 22) 조규화, 복식미학, p. 343.
- 23) C.W. & P.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 London & Boston: Faber & Faber, 1981, p. 92
- 24) 뒤마 피스, 양원달 역, p. 293.
- 25) 조규화, 복식미학, p. 343.
- 26) www.naver.co.kr
- 27) 김미옥, La Dame aux Camélias(춘희)에 표현된 복식과 미의식.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7.
- 28) 뒤마 피스, 양원달 역, p. 20.
- 29)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 176.
- 30) 뒤마 피스, 양원달 역, p. 19.
- 31) 앞 글, p. 105.
- 32) 앞 글, p. 105.
- 33) 앞 글, p. 164.